

대등과 종속에 관한 일고찰

김 건 희*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등과 종속에 관한 구별 기준인 ‘대칭성, 이동현상, 대용화, 주제 보조사 -는’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 기준을 보완하고자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와 같은 범언어적인 대등과 종속 기제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복문의 대등과 종속 구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라는 대등과 종속의 구별 기제로 대등문과 종속문에 나타나는 의미적 조건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목도하였고 이에 대한 하나의 시론적 고찰로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문장들의 의미·화용론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곧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장들의 ‘문법적 의존성’을 범언어적인 대등과 종속의 구별 기제인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형적인 종속문의 특징을 보이는 ‘-지’ 결합 문장이 이러한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를 보여 종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반면에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소위 ‘선택’, ‘대조’ 대등문의 경우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 등으로

* 서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제어: 대등, 종속, 대칭성, 강조, 대조,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

Coordination, subordination. symmetry, focus, contrast, shared tense, (non-)switch reference

판단한 결과 대등성과 종속성 모두 나타났다. 특히 ‘대칭성’의 전통적인 기제에 의하면 ‘선택’ 접속문만 대등성을 보였고 ‘주어 동일 지시’의 범언어적인 기제에 의하면 오히려 ‘선택’ 접속문이 종속성을 보였다. 기존 논의에서도 대등과 종속이 ‘정도 차이’임을 주장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소위 대등문, 종속문 각각에 대등성과 종속성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보이며 이러한 ‘정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등과 종속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1. 머리말

국어 문장의 확장 구성 및 이와 관련되는 어말어미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등문과 종속문이 차이가 있고 종속문의 ‘종속 접속절’과 내포문의 ‘부사절’이 공통점이 있으므로 결국 종속 접속절을 부사절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¹⁾

- (1) ㄱ. 대등 접속문 ≠ 종속 접속문
 ㄴ. 종속 접속절 ⊆ 부사절

이러한 선행 연구 배경을 반영하듯이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분하는 선행 연구의 대표적인 기준들을 살펴보면 특히 종속 접속절의 종속문을 부사절이 내포된 내포문에 포함시키고자 종속문의 종속성, 곧 통사적 의존

1) 문장과 절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대등 접속절, 종속 접속절은 각각 대등 접속어미 및 종속 접속어미가 결합된 절을 가리키며 종속 접속절 및 대등 접속절과 같은 접속된 절을 포함하는 복문은 각각 종속문, 대등문이라고 부르겠다. ‘종속문, 대등문’은 ‘종속 접속문, 대등 접속문’의 줄임말로 논의의 편의상 이렇게 짧게 명명하겠다. 종속문의 경우 종속 접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지며 대등문의 경우 선행하는 대등절(선행절)과 후행하는 대등절(후행절)로 이루어진다. 또한 부사절과 같은 내포된 절을 포함하는 복문은 내포문이라고 부르겠다.

성만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분하는 선행 연구의 4가지 기준 중에서 대등문의 고유한 특징 곧 통사적, 의미적 대등성과 관련된 논의는 ‘대칭성’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대칭성’을 보이는 것이 대등문이라면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종속문이 되므로 ‘대칭성’도 종속성과 연계되는 특징이다. 나머지 세 가지 기준들은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두 종속문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논의이다.²⁾ 곧 기준 기준의 주요 목적은 ‘접속’에서 종속 접속을 대등 접속과 분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속성 판단 중심의 기존 통사적 기준들을 검토하면서 범언어적인 대등/종속 기제들도 함께 논의하여 대등과 종속의 구분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기존의 통사적 기준을 재검토하여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의미적 의존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재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적 의존성’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하여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을 바탕으로 대등문과 종속문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의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분하는 통사적 기준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김영희³⁾, 임흥빈·장소원⁴⁾, 이은경⁵⁾, 최재희⁶⁾, 이관규⁷⁾ 등 선행 연구에서 제

2)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분하는 이러한 통사적 기준은 그대로 종속 접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었다(최재희(1997), 이관규(1999-7) 참조). 다만 유현경(1986)에서는 ‘대용화 현상’과 ‘주제어 제약’만으로 종속 접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두 기준도 역시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통사적 기준이다.

3)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 한글학회, pp. 83-117.

4)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1』,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5) 이은경(1995), 「접속문의 대등성과 종속성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3, 텍스트언어학회, pp. 237-262.

6) 최재희(1997), 「국어 종속 접속의 통사적 지위」, 『한글』 238, 한글학회, 119-144.

7) 이관규(1999-7), 「대등문 종속문 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정어문』 27-1, 서울

시한 통사적 기준에 대해 논의하겠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대등과 종속을 구별하는 ‘의미적 의존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복문에 나타나는 ‘강조와 대조’의 결합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조사 ‘-은/는’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이 어미 및 복문 연구에서 ‘강조와 대조’의 결합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 Dik⁸⁾, Hengeveld⁹⁾의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그 논의 배경을 제시하겠다. 다음으로 대등문과 종속문의 ‘강조와 대조’에 대해 실제 예시 분석을 제시하겠다. 예시 분석에서는 ‘강조와 대조’에 의해 대등성이 아닌 기본적으로 종속성을 보이는 복문에 나타난 형태·통사적 특징, 곧 문법적 의존성을 살펴본다. 이때 형태·통사적 특징은 앞서 2장에서 제시된, 범언어적으로 대등성과 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제인 ‘주어 동일 지시 여부, 시제 표시 및 공유’ 등이다. 4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겠다.

2.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통사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

대등문과 종속문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 ㄱ. 선·후행절의 자리 바꾸기, 선행절 옮기기, 접속사 되풀이, 내포 접속문 구성, 재귀 대명사, 후행절 주제어.¹⁰⁾

대학교 국어교육과, pp. 753-780.

8) Dik (1997),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 I: The Structure of the Clause*, Berlin and New York, NY: Mouton de Gruyter.

9) Hengeveld (2008), *Functional Discourse Grammar: A typologically-based theory of language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ㄴ. 재귀화, 역행 대응, 교호성(앞 뒤 절의 위치 바꿈), ‘-은/는’ 결합.¹¹⁾
- ㄷ. 앞 뒤 절의 위치 바꿈(대칭성), 이동 현상 제약, 대응 현상 제약, 주제 보조사 ‘은/는’의 실현.¹²⁾
- ㄹ. 선·후행절의 비대칭성, 선행절 이동, 공대명사 실현 양상, 주제 조사 ‘-는’ 실현, 대응사 실현 양상.¹³⁾
- ㅁ. 대칭성, 교호성, 선행절의 위치 이동, 대응화, 연결소 되풀이¹⁴⁾

이들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사적 기준은 ‘대칭성(앞 뒤 절의 위치 바꿈)’, ‘이동 현상’, ‘대용화’, ‘주제 보조사 ‘-는’이다.

〈표 1〉 선행 연구의 대등/종속 구분의 통사적 기준

	김영희	임흥빈·장소원	이은경	최재희	이관규	총계
재귀화	○	○				2
대용화		○	○	○	○	4
대칭성	○	○	○		○	4
주제조사	○	○	○	○		4
이동현상	○		○	○	○	4
접속사되풀이	○				○	2
내포 접속문	○					1

10) 김영희(1988).

11) 임흥빈·장소원(1995).

12) 이은경(1995).

13) 최재희(1997).

14) 이관규(1999 ㄱ).

2.1. 대칭성

‘대칭성’은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의 자리를 바꾸어도 원래의 문장과 통사, 의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은경¹⁵⁾, 최재희¹⁶⁾, 이관규¹⁷⁾ 등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임흥빈·장소원은 ‘교호성’(앞 뒤 절의 위치 바꿈)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¹⁸⁾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 하면서 공통적으로 ‘대칭성’이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았다.

- (3) ㄱ. 어린이도 땡굴며 어른도 땡군다.
= 어른도 땡굴며 어린이도 땡군다.
ㄴ.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다. ≠ 꽃이 피니까 봄이 온다.¹⁹⁾
- (4) ㄱ. 철수가 오고, 영희가 간다. = 영희가 가고, 철수가 온다.
ㄴ. 비가 오면, 기분이 좋다. ≠ 기분이 좋으면, 비가 온다.²⁰⁾
- (5) ㄱ. 꽃이 피고 새가 온다. = 새가 울고 꽃이 핀다.
ㄴ. 꽃이 피면 새가 온다. ≠ 새가 울면 꽃이 핀다.²¹⁾
- (6) ㄱ. 철수가 밥을 먹고 영희가 빵을 먹는다.
= 영희가 빵을 먹고 철수가 밥을 먹는다.
ㄴ. 날씨가 좋으면 내일 소풍 간다.
≠ 내일 소풍 가면 날씨가 좋다.²²⁾

15) 이은경(1995), p. 239.

16) 최재희(1997), p. 128.

17) 이관규(1999ㄱ), p. 755.

18) 임흥빈·장소원(1995), p. 143.

19) 김영희(1988), pp. 95-96.

20) 임흥빈·장소원(1995), p. 329.

21) 최재희(1997), p. 128.

이러한 대칭성은 분명히 대등문과 종속문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사적 특징이다. 그러나 이은경에 따르면, 전형적인 대등문과 전형적인 종속문은 대칭성에 차이를 보여 대칭성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만 (7)과 같은 대등문과 종속문은 대칭성이 정 반대로 나타난다.²³⁾ 따라서 대칭성이 대등 접속의 두드러진 특성이기는 하지만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을 구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이 절대적으로 이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성과 종속성이 정도의 문제로 파악된다고 주장하였다.

- (7) ㄱ. 철수가 오고 영희가 왔다. ≠ 영희가 오고 철수가 왔다.
 ㄴ. 철수는 건강한데 영희는 약하다.
 = 영희는 약한데 철수는 건강하다.²⁴⁾

선행 연구에서는 대칭성이 없는 ‘-고’가 쓰인 문장(4ㄱ, 5ㄱ)에 대해 대칭성이 있는 ‘-고’로 판단한 형태 중심의 문법 기술이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학원에 다니고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은 ‘-고’처럼 그 비대칭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대칭성’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어미 ‘-고’에도 대칭성이 있는 경우(6ㄱ)와 없는 경우(4ㄱ, 5ㄱ)로 엄밀히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또한 (7ㄴ)과 같은 종속문도 대등문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간주되는 ‘대칭성’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후 고영근·구분관도 이러한 대칭성의 차이를 보이는 아래 (8)을 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대등 접속어미로 간주되는 ‘-고’를 가진 문장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의 의미를 가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도 분류

22) 이관규(1999ㄱ), p. 756.

23) 이은경(1995), pp. 241-242.

24) 이은경(1995), pp. 241-242.

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²⁵⁾ 곧 대칭성 기제에 의해 ‘시간적인 선후 관계’와 같은 비대칭적 의미 해석을 가질 경우에는 종속문으로 간주하였다.

- (8) 가.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 여름이 왔고 봄이 갔다.
- 나. 형이 왔고 우리는 그제야 안심했다.
≠ 우리는 그제야 안심했고 형이 왔다.

‘대칭성’은 순서를 맞바꾸어도 비문법적이지 않고 문장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통사적 조건이며 순서를 맞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는 의미적 조건이다. 따라서 엄밀히는 통사·의미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8)과 같은 경우는 통사적 조건에는 충족되지만 ‘시간적 선후 관계의 뒤바뀐’이라는 의미 차이가 생기므로 의미적 조건에 의거하여 ‘(의미적) 비대칭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칭성은 앞으로 더 살펴볼 종속성 위주의 다른 통사적 조건과는 구별되는 통사·의미적 조건이므로 대등과 종속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변별적인 기준으로 보고²⁶⁾ (7ㄴ)과 같은 반례가 존재하더라도 본 논문의 대등/종속을 판별하는 주요 구별 기제로 3장에서도 계속 논의하겠다.

2.2. 이동 현상 - ‘시제 공유’ 기제로 보충

‘이동 현상’ 제약은 대등문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종속문에서는 종속 접속절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동 현상’ 제약에 대해 대등문과 종속문이 차이를 보이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25)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p. 491.

26) 김건희(2012), pp. 171-172)에서는 ‘대칭성’은 대등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분하는 데 적절한 기제이지만 종속 접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하는 기제는 아님을 제시하였다.

- (9) ㄱ. 가을비가 내리고 낙엽이 떨어진다.
≠ 낙엽이, 가을비가 내리고, 떨어진다.
ㄴ. 날이 풀리니까 인파가 거리에 붐빈다.
= 인파가, 날이 풀리니까, 거리에 붐빈다.²⁷⁾
- (10) ㄱ. 영희가 가고, 철수가 온다. ≠ 영희가, 철수가 오고, 간다.
ㄴ. 기분이 좋으면, 비가 온다. = 기분이, 비가 오면, 좋다.²⁸⁾
- (11) ㄱ. 철수가 공을 차고 영수가 줄넘기를 한다.
≠ 영수가 철수가 공을 차고 줄넘기를 한다.
ㄴ. 꽃소식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나간다.
= 많은 사람들은 꽃소식이 오면 산으로 나간다.²⁹⁾
- (12) ㄱ. 형이 크고 아우가 작다. ≠ 아우가 형이 크고 작다.
ㄴ.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야외로 가겠다.
= 우리는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가겠다.³⁰⁾

이와 같이 종속문의 종속 접속절은 주절로 이동할 수 있으나 대등문의 선행절은 후행절로 이동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는 대등문의 선행절이 자연스럽게 후행절로 이동할 수 있다.

- (13) 눈이 내리지만, 날씨가 춥지는 않다.
= 날씨가, 눈이 내리지만, 춥지는 않다.

이처럼 ‘이동 현상’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13)과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외가 존재하지만 이동 현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접

27) 김영희(1988), pp. 97-98.

28) 임홍빈·장소원(1995), p. 329.

29) 최재희(1997), pp. 129-128.

30) 이관규(1999), p. 758.

속에서 종속 접속을 대등 접속과 분리하는 중요 기준이다. 종속 접속절 ‘이동 현상’의 요인에 대해 김건희는 고영근·구본관³¹⁾ 등을 참조하여 ‘종속’이라는 주절에 의존적인 의미적 특성이 종속 접속절을 주절 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³²⁾ 이러한 논의에서 ‘이동 현상’(제약)이라는 통사적 기저에는 ‘의존적인 의미적 조건’이라는 대등문과는 다른 종속문의 특성이 기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 현상’이라는 통사적 특성의 토대가 되는, 이러한 의미적 조건을 체계화하는 논의는 3장에서 제시하겠고 이번에는 ‘이동 현상’과 관련하여 관점을 달리하여 범언어적인 기제로 살펴보겠다.

Jendraschek & Shin은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명시적인 시제 표시(tense marking)’는 접속어미가 이끄는 절의 독립성(autonomy)을 증가시켜 절의 종속(downgrading)을 막아준다고 하였다.³³⁾

(14) ㄱ. 인호는 미나에게 오래 동안 TV를 보고 말했다.

ㄴ. *인호는 미나에게 오래 동안 TV를 보았고 말했다.³⁴⁾

반면에 ‘시제 공유(shared tense), 주어 지시(subject referent)³⁵⁾’는 절의 종속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하였다. 곧 국어에서는 (14 ㄱ)과 같이 첫 번째 동사에 명시적인 시제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동사의 사건이 두 번째 동사에 비해 먼저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제 공유는 ‘시간

31) 고영근·구본관(2008).

32) 김건희(2012), 『부사절과 관형사절의 수식』,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pp. 75-76.

33) Jendraschek & Shin (2012), Korean converbs between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The proceedings of 2012' Language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34) Kwon & Polinsky (2008), What does coordination look like in a head-final language?, in Lewandowsky-T., Barbara (eds.), *Asymmetric Events*, Amsterdam: Benjamins. p. 96.

35) 다음 장에서 ‘주어 동일 지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적인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Whaley³⁶⁾에서는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에 포함되지 않는 ‘대등 종속 접속’이라는 유형을 제시했다.

- (15) Fu fi fase isoe
 3단수 앉다 편지 쓰다
 그는 앉아서 편지를 썼다.

위 Barai어 예시에서 두 개의 동사(fi(‘앉다’), isoe(‘쓰다’))는 서로의 의미적 논항이 아니라 의미적 의존성이 없고 내포관계도 없다. 따라서 대등 접속으로 보기 쉽지만 두 동사가 동일한 주어를 공유하며 같은 시제와 서법을 가지고 있어서 종속 접속과 관련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등 종속 접속’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주어 동일 지시’와 ‘시제 공유’를 가진 유형은 대등과 종속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인데 국어에서는 이러한 유형으로 (16)과 같은 문장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국어에서는 (16)과 같이 선행절에 시제 표시가 되지 않으면 후행절의 시제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방법’이라는 종속 접속과 관련된 의미적 의존성을 확실히 보인다.

- (16)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이와 같이 언어유형론적 관점에 따라 ‘주어 동일 지시’와 ‘시제 공유’가 국어에서도 종속성의 기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 먼저 범언어적인 종속화 기제인 시제 공유에 대해 ‘이동 현상’과 관련하

36) Whaley(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김기혁 옮김 (2008), 『언어 유형론』, 소통), pp. 355-357.

여 과거 시제 어미 ‘-었’ 결합으로 살펴보자.

- (17) ㄱ.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 ㄴ. 나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를 타고’는 방법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절로 이동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과거 시제 어미가 결합되어 명시적인 시제 표시가 나타난 (18 ㄱ)은 독립성(autonomy)이 커진다. 따라서 (18 ㄴ)과 같이 이동 현상이 나타나지 못한다.

- (18) ㄱ. 나는 버스를 탔고 학교에 갔다.
- ㄴ. *나는 학교에 버스를 탔고 갔다.

이처럼 둘 다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이는 종속문이지만 시제 공유를 보이는 (17 ㄱ)에 비해 시제를 명시한 (18 ㄱ)의 경우 독립성이 커져 ‘이동 현상’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18 ㄱ)이 독립성이 커진다는 것은 (17 ㄱ)과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17 ㄱ)은 ‘방법’이지만 (18 ㄱ)은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이처럼 시제 공유 여부에 의해 (17 ㄱ)과 (18 ㄱ)은 의미적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의미적 조건에 의거하여 (18 ㄱ)은 (17 ㄱ)과 달리 이동 현상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접속문의 ‘시제 공유’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경은 ‘-었’, ‘-겠’ 등의 시제 어미가 결합될 수 없는 선행절의 경우 후행절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하였다.³⁷⁾ 특히 권재일은 접속문에서의 시제법 해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³⁸⁾

37) 이은경(2000), 『국어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p. 148.

38)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p. 194.

(19)

- ㄱ. 선행절에 시제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다음 경우에는 선행절의 시제는 후행절 시제에 의존하여 해석된다.
 - a. 시제어미의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 b. 시제어미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ㄴ. 선행절에 시제어미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행절의 시제와 후행절의 시제는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17)과 같은 대등 접속에서는 시제 어미가 선행절에 결합되어 있지 않고 (19)에서 제시된 것처럼 선행절의 시제는 후행절 시제에 의존하여 해석되어 그 독립성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절에 시제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제 어미가 결합되는 것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고 선행절에 시제 어미가 결합될 수 있지만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20)과 같이 시제 어미가 결합되거나 결합되지 않거나 종속성 정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20) ㄱ.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는 말았어야지.
- ㄴ. 아무리 힘들었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는 말았어야지.

또한 선행절에 시제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21)과 같이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21) 순우도 놀이터에 갔으니 아람이도 놀이터에 가거라.³⁹⁾

‘시제 공유’와 관련해서는 개별 어미의 의미 특성에 의해 다양한 시제 어미 결합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본고의 주장이 다 포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제 공유’ 현상을 단순히 접속법에 나타나는

39) 권재일(2012), p. 193.

기술적 문법 특성으로 보지 않고 ‘시제 공유’에 의해 종속성의 정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18)과 같은 예를 통해 ‘시제 공유’ 현상이 절들의 독립성을 증가시켜 의미적 차이를 유도하는 설명적 기제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종속문도 ‘시제 공유’가 된 종속문과 그렇지 않은 종속문은 이러한 의미적 의존성 곧 종속성 정도를 보이며 ‘이동 현상’의 통사적 제약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절과 ‘시제 공유’가 된 종속 접속절의 경우 주절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절과 시제 공유가 되지 않은, 시제가 명시된 종속 접속절의 경우 주절 안으로 이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종속문에서도 ‘시제 공유’ 여부로 종속성의 정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3. 대용화 – ‘주어 동일 지시’ 기제로 보충

김영희⁴⁰⁾, 임홍빈·장소원⁴¹⁾, 최재희⁴²⁾ 연구에서는 대등문은 역행 대용, 순행 대용화가 모두 불가능하지만 종속문에서는 아래 예문들로 역행 대용화는 가능함을 보였다. 즉 ‘역행 대용화’를 기준으로 할 때 종속문에 서만 역행 대용화가 가능함을 보였다.

- (22) ㄱ. *순이가 한 손에 꽃을 들고 자기가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ㄴ.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 선생이 꼭 참았다.
 이 선생이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꼭 참았다.⁴³⁾

- (23) ㄱ. *철수가 오고, 자기가 이 일을 할 것이다.
 ㄴ. 철수가 오면, 자기가 이 일을 할 것이다.⁴⁴⁾

40) 김영희(1988).

41) 임홍빈·장소원(1995).

42) 최재희(1997).

43) 김영희(1988), p. 104.

- (24) ㄱ. *철수_i는 춤을 추고 자기_i가 노래를 불렀다.
- ㄴ. 영화_i는 자기_i가 놀고 싶으면 여러 사람들을 끌고 다녔다.⁴⁴⁾

이관규도 아래 (25)를 통해 대등문에서는 후행절에서만 대용화가 되는 순행 대용화가 적용됨에 비해 종속문에서는 종속 접속절에서만 대용화가 가능한 역행 대용화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⁴⁶⁾

- (25) ㄱ. 철수가 학교에 가거나 자기_i가 도서관에 간다.
- ㄴ. 호성이_i는 자기_i가 다시는 낙제를 안 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에서는 대용화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다. 종속문에서 종속 접속절은 주절 안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한 경우에는 순행 대용,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행 대용 모두가 가능한 것이다.⁴⁷⁾ 다만 이러한 통사적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중점은 대등문에서는 선행절에 나온 요소를 후행절에서 대용화할 수 있지만 종속문에서는 주절의 요소가 대용되는 경우는 없고 종속 접속절의 요소가 주절에 조응하여 대용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동 현상’과 마찬가지로 ‘대용화 현상’은 대등문과는 다른 종속문에 나타나는 ‘의존적인 의미적 조건’이 기반이 되어 절들 간에 대용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 대용화에서 다른 기존 예문들을 좀 더 살펴보자.

44) 임흥빈·장소원(1995), p. 330.

45) 최재희(1997), pp. 134-135.

46) 이관규(1999 ㄱ), pp. 759-762.

47) 김선혜(2014, p. 136)에서도 대용화의 방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속문이지만 순행 대용화, 역행 대용화가 모두 가능한 다음과 같은 유현경(1986) 예문을 제시하였다.

- ㄱ. 온달은 온달(그/자기)의 아내가 공주이므로 부마가 된다.
- ㄴ. 온달(그/자기)의 아내가 공주이므로 온달은 부마가 된다.

(23) ㄱ. *철수_i가 오고, 자기_i가 이 일을 할 것이다.

ㄱ'. 철수가 오고 철수가 이 일을 할 것이다.

ㄱ". 철수가 오고 이 일을 할 것이다.

ㄴ. 철수가 오면, 자기_i가 이 일을 할 것이다.

ㄴ'. 철수가 오면, 철수가 이 일을 할 것이다.

ㄴ". 철수가 오면, 이 일을 할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 예문들에서 재귀대명사로의 대용화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위와 같이 앞서 살펴본 (23) 예문은 대등문, 종속문 모두에서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용화 없이 주어가 그대로 반복되거나(23 ㄱ', ㄴ') 주어를 생략하는 것(23 ㄱ", ㄴ")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아래 예시들처럼 앞서 제시된 대용화의 모든 대등문, 종속문에서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2) ㄱ. *순_i가 한 손에 꽃을 들고 자기_i가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ㄱ'. 순이가 한 손에 꽃을 들고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ㄴ. ?자기_i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 선생_i이 꼭 참았다.

이 선생_i이 자기_i가 손해를 볼지라도 꼭 참았다.

ㄴ'. 이 선생_i이 손해를 볼지라도 꼭 참았다.

(24) ㄱ. *철수_i는 춤을 추고 자기_i가 노래를 불렀다.

ㄱ'. 철수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ㄴ. 영희_i는 자기_i가 놀고 싶으면 여러 사람들을 끌고 다녔다.

ㄴ'. 영희는 놀고 싶으면 여러 사람들을 끌고 다녔다.

(25) ㄱ. *철수가 학교에 가거나 자기가 도서관에 간다.

ㄱ'. 철수가 학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간다.

ㄴ. 호성이는 자기가 다시는 낙제를 안 하도록 노력했다.

ㄴ'. 호성이는 다시는 낙제를 안 하도록 노력했다.

대용화 현상은 종속 접속절이 주절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종속 접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에 조응하여 대용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처럼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등문이나 종속문이나 대용화 현상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시제 공유’와 더불어 ‘주어 동일 지시’를 범언어적인 종속화의 기제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주어 동일 지시로 주어가 생략된 소위 ‘대등문’의 경우(26)에 ‘시간적 선후 관계’, ‘동시성’과 같은 의미적 의존성을 보인다.⁴⁸⁾

(26) (22 ㄱ). 순이가 한 손에 꽃을 들고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23 ㄱ). 철수가 오고 이 일을 할 것이다.

(24 ㄱ). 철수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25 ㄱ). 철수가 학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간다.

무엇보다 (27 ㄱ) ‘주어 생략’과 (27 ㄴ, ㄷ) ‘대용화’를 비교하면 (27 ㄴ) 대용화에서는 ‘그’가 ‘철수’를 동 지시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27 ㄷ)의 ‘그’는 ‘철수’와 동 지시되지 않는다. 이처럼 대용화에서는 ‘철수’가 동 지시되지 않아 각각 다른 주어의 서술로 명확한 대등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27 ㄱ)과 같이 ‘주어 동일 지시’에 의해 후행절 주어가 생략

48) 물론 후행절 주어가 복원되어도 이러한 시간성을 동일하게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주어 생략이라도 (25 ㄱ)과 같은 선택 접속문은 이러한 의미적 의존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동일한 주어에 대한 서술이므로 주어가 선행절에 나타나고 후행절 주어는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되면 종속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어 대용화보다는 주어 동일 지시에 의한 ‘생략’으로 종속성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국어에서도 ‘주어 동일 지시’를 종속성의 기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7) [생략]

ㄱ. 철수가 학교에 가거나 (철수가) 도서관에 간다.

[대용화]

ㄴ. 철수가 학교에 가거나 그가(?철수가) 도서관에 간다.

ㄷ. 그가(*철수가) 학교에 가거나 철수가 도서관에 간다.

이러한 ‘주어 동일 지시’와 관련하여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면, 동일 지시의 주어를 가진 절들로 연결된 복문에서 주어를 표시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다르다. 교체 지시(switch reference)로 널리 알려진 주어 표시 방법은 동일 주어 여부를 형태론적으로 동사에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Lango어에서는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non-switch reference) 접두사 e-를 동사에 결합시키고 같지 않으면(switch reference) 접두사 o-를 동사에 결합시킨다.

(28) ㄱ. non-switch reference

Dako opoyo ni e-cego dɔgola

그 여자 기억했다 보문소 닫았다 문

‘The woman remembered that she closed the door’

ㄴ. switch reference

Dako opoyo ni o-cego dɔgola

그 여자 기억했다 보문소 닫았다 문

‘The woman remembered that he/she closed the door’⁴⁹⁾

49) Noonan (1985), Complementation, in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omplex constructions*, Volume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80-81.

또한 Arrernte어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 가 같으면 접미사 -le를 동사에 결합시키고 같지 않으면 접미사 -rlenge를 동사에 결합시킨다.

(29) ㄱ. non-switch reference

Artwe alyelheme-le petye-me
 그 남자 노래하면서 오고 있다.

ㄴ. switch reference

Artwe alyelhe(me)-rlenge ayenge petye-me
 그 남자 노래하고 있는 동안, 나는 가고 있다.⁵⁰⁾

이처럼 절들의 주어 동일 지시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언어유형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나 국어에서는 위 언어들과 같은 명시적인 형태론 표지가 없어서인지 국어 ‘대등/종속’ 구별 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⁵¹⁾ 대신에 주어가 동일한 절들의 의존성에 대해 주어의 ‘대용화’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것처럼 국어 복문에서는 동일한 주어를 공유하는 절들의 의존성을 ‘대용화’로 표시하기 보다는 후행절에서 동일한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처럼 절들이 동일한 주어를 가지며 후행절에서 동일 주어를 생략한 복문은 (27)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종속의 특징을 보인다. 곧 기존 논의에서 동일 주어 관계가 설정되면 일반대명사나 재귀대명사로의 ‘대용화’로 절들의

50) Wilkins, David P. (1988), Switch-Reference in Mparntwe Arrernte (Aranda): Form, Function, and Problems of Identity, in P. Austin (ed.) *Complex Sentence Constructions in Australian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pp. 141-176.

51) 일찍이 권재일(1985), 남기심(1985), 최재희(1991), 이은경(2000) 등에서 국어에서는 접속어미들의 성격에 따라 선,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되는 경우, 일치되지 않는 경우, 일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특히 남기심(1985)에서는 ‘-고, -으며’ 등의 문장에서 선행절의 주어가 생략될 수 없다는 제약을 발견하고 이를 ‘대등접속’의 특징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행절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주어 동일 지시’ 구문은 (27)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종속접속’의 특징을 보인다.

상호 문법적 의존성을 표시한다고 보았는데 이보다는 ‘생략’이 문법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특히 ‘생략’에 의한 동일 지시가 ‘대용화’보다 종속성 정도가 크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2.2.장과 2.3.장에 걸친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가 두 절의 의존성과 관련된 종속화의 주요한 기제로 ‘대등과 종속’의 구별 기제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장에서는 이러한 구별 기제로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문과 종속문에 대해 고찰하겠다.

2.4. 주제 보조사 ‘-는’

주제 보조사 ‘-는’의 실현 제약은 대등문에서는 이 실현이 자유롭지만 종속문의 선행절에서는 ‘-는’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0) ㄱ. 영희는 오고, 철수는 간다.

ㄴ. *영희는 오면, 철수는 간다.⁵²⁾

(31) ㄱ.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ㄴ. *철수는 학교에 가니까 영수는 도서관에 갔다.⁵³⁾

그러나 대조를 표현하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종속문의 선행절도 주제어가 허용된다.

(32) ㄱ. 비는 내리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ㄴ. 영희는 예쁘는데 동생은 좀 떨어진다.

ㄷ. 외관은 부실해도 그곳이 그림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52) 임흥빈·장소원(1995), p. 330.

53) 최재희(1997), pp. 133-134.

이러한 주제 보조사 ‘-는’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포절의 주어는 주제 보조사 ‘-는’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제 보조사 ‘-는’이 제약되는 종속 접속절도 부사절과 같은 내포절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조를 표현할 경우에는 다양한 내포절에도 다음과 같이 주제 보조사 ‘-는’이 나타난다.

- (33) ㄱ. 철수는 가는 대학을 너는 왜 못 가니?(관형사절)
 - ㄴ. 영수는 영희에게 철수는 대학에 간다고 말했다.(인용절)
 - ㄷ. 영수는 영희에게 철수는 대학에 가기를 포기했다고 말했다.(명사절)
 - ㄹ. 내가 철수는 대학에 가게 벌써 손을 다 써 났다.(부사절)
 - ㅁ. 코끼리가 코는 길다.(서술절)

이와 같이 주제 보조사 ‘-은/는’은 ‘주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조를 표현하는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고 할 것이다.⁵⁴⁾

3. 대등과 종속에 관한 의미적 고찰

3.1. 의미적 고찰 배경

2장에서는 대등문과 종속문을 구분하는 기존의 기준에 대하여 서로

54) 이관규(1999), pp. 755-775)에서는 대등문과 종속문, 또는 종속문과 부사절 구문을 변별시키는 기준으로 ‘1대칭성 · 교호성, 2선행절의 위치 이동, 3대용화, 4연결소 되풀이, 5공백화, 6선 · 후행절의 독립적 시제 해석, 7선행절의 종결 서법 해석, 8선행절의 주제 표시’ 등이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왔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1-4가 대등문과 종속문 및 부사절 구문을 변별시킬 수 있는 필수 특성들이고 5-7은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는 조건 특성들이며 8(주제 보조사 ‘-는’)은 종래 대등문과 종속문, 부사절 구문을 변별시키는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변별 특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한 선행 연구들도 살펴보고 선행 연구의 통사적 기준에 맞지 않는 몇 가지 반례들도 제시하였다. 또한 종속성 여부를 가르는 선행 연구의 통사적 기준들도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한 결과 종속성에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종속성’ 판단 위주의 이러한 기준들이 표면적으로는 통사적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절들의 의미적 의존성에 좌우되어 반례들도 의미적 조건에 따라 나타나 이러한 ‘의미적 조건’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재고하였다.

이처럼 대등과 종속의 차이를 의미적 의존성으로 보는 선행 연구가 일찍이 있었다. 먼저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의 차이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의미적인 문제로 본 엄정호⁵⁵⁾, 이은경⁵⁶⁾, 고광주⁵⁷⁾의 논의가 있다. 장요한은 접속절의 서법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⁵⁸⁾ 임동훈은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구조를 동일하게 보고 대등성은 통사론적 특성이 아니라 의미론적 특성으로 보았다.⁵⁹⁾ 특히 Sohn은 대등(coordination)과 종속(subordination)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서 몇몇 통사적 기준이 있다 해도 대등과 종속은 의미적 의존성의 유무가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⁰⁾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를 고찰한 Yeon & Brown 역시 ‘대등과 종속’ 대신 의미유형인 ‘causal, contrastive, additional/sequential, op-

55) 엄정호(1991), 「‘-고’ 등위 접속문의 구조」, 『언어와 언어교육』 6, 동아대학교 어학연구소, pp. 123-135.

56)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7) 고광주(1999), 「대등 접속문에 대한 재검토」,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pp. 49-80.

58) 장요한(2007), 「‘문장의 확장’에 대한 소고」, 『시학과 언어학』 14, 시학과 언어학회, pp. 191-220.

59)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pp. 87-130.

60) Sohn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onal'으로 접속문 유형을 나누었는데,⁶¹⁾ 이러한 논의도 통사적 절 구분 대신에 의미 유형의 절 구분을 제시하여 이번 장의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적 특징에 기반한 접속문 논의와 맞닿아 있다.

3.2. 강조와 대조의 결합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미적 조건'을 좀 더 체계화하는 하나의 시도로 어미 결합에 의한 '강조와 대조'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한다. 기존 논의에서는 '의미적 조건'을 살펴보다라도 어미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 특성에 주목하였다면 본고에서는 일련의 어미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화용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국내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강조와 대조'의 결합을 주목한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이익섭·채완은 아래 (34)를 제시하면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점에서 대등접속의 특성을 갖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문장 전체의 초점이 후행절에 있으며 선행절은 후행절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절이 후행절에 의존적인 면도 있다고 제시하였다.⁶²⁾ 덧붙여 선행절이 후행절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접속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대등접속이라 하더라도 의미상 다소간의 의존성은 있게 마련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4) 인생은 짧{아도, 지만, 으나} 예술은 길다.

이 논의에서도 서로 대조되는 절들의 선택을 통해 어느 한 절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강조와 대조'는 '대등'과 '종속'의

61) Yeon &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259-302.

62)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의미적 의존성’에 대한 구별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형태, 통사적 기준(대칭성, 이동 현상, 대용화, 주제 보조사 ‘-는’ 결합 여부)에 대한 보충적인 기준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조사의 경우 대조화제(contrastive topic),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 등 강조와 대조의 결합 양상에 대해 특히 ‘-은/는’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어미와 관련된 ‘강조와 대조’를 결합시킨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언어유형론적 관점의 논의를 수용하여 종속문, 대등문에 대해 ‘강조와 대조’의 결합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때 종속문, 대등문이라 함은 이론 문법과 규범 문법에서 종속 접속어미, 대등 접속어미가 결합된 종속 접속절, 대등 접속절을 가져 소위 종속문, 대등문으로 인정받는 문장들이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통사적 기준에 대해 논의하여 의존성과 같은 의미적 조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복문을 아우르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에 대한 시론적 고찰로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에서 비롯된 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 보려는 것이다.

3.2.1. 언어유형론적 고찰

먼저 ‘강조’와 관련된 언어유형론적 관점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 국내의 논의에서는 어미와 관련해서 주로 ‘강조’라는 용어를 쓰고 잘 알려진 ‘초점(focus)’은 조사 ‘-은/는’ 연구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Hengeveld⁶³⁾, Dik⁶⁴⁾ 등이 논의한 focus와 contrast의 결합을 수용하므로 본고에서는 ‘강조(focus)’로 제시한다. 먼저

63) Hengeveld (2008).

64) Dik (1997).

Dik은 범언어적으로 강조가 실현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⁶⁵⁾

- (35) (i) prosodic prominence(운율적 두드러짐)
- (ii) special constituent order(특정한 성분 어순)
- (iii) special Focus marker(특정한 강조 표지)
- (iv) special Focus constructions(특정한 강조 구문)

또한 Hengeveld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언어는 화제 중심 언어(topic oriented)와 강조 중심 언어(focus oriented)로 나뉘는데 강조 중심 언어인 kisi 어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⁶⁶⁾ 하나는 강조된 요소가 앞 쪽에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조 표지(focus particle)가 절의 마지막 위치(clause-final position)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두 논의를 토대로 강조를 나타내는 국어 어말어미의 강조 표지(focus marker, focus particle)로서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조, 대조’와 관련된 Dik⁶⁷⁾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강조(Focus)의 분류

New[Completive]

Contrast : Parallel

Counter-presuppositional:

Replacing

Expanding

Restricting

Selecting

(36)에서는 강조를 일차적으로 신정보(New(Completive))와 대조(Contrast)

65) Dik (1997), pp. 278-279.

66) Hengeveld (2008), p. 101.

67) Dik (1997), pp. 281-282.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신정보 유형은 정보상의 빈자리(information gap)을 채워주는 유형이다. 대조 유형의 경우 병렬(Parallel)과 비추정(Counter-presuppositional) 대조로 나누었다. 병렬(parallel) 대조는 ‘존과 빌이 나를 만나러 왔다. 존은 착하지만 빌은 약간 지루하다.’와 같은 대칭성을 띤 대조이다. 이러한 ‘대칭성 대조’에 대해서는 ‘3.2.3. 대등문의 강조와 대조’에서 살펴보겠다.

특히 (36)에서 비추정 대조는 대치(Replacing), 확장(Expanding), 제한(Restricting), 선택(Selecting)형으로 다시 나뉘지는데 국어의 ‘강조와 대조’에서 접속어미 ‘-지’가 나타나는 종속문의 경우 대치형을 보이고 대등문의 경우 선택형으로 나타난다. ‘대치형 대조’에 대해서는 ‘3.2.2. 종속문의 강조와 대조’에서 살펴보겠다. 주목할 점은 위 (36)의 강조 유형에서 신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조가 기반이 되어 ‘강조와 대조’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7) 비추정(Counter-presuppositional) 대조의 유형

			표현 방식
ㄱ. Completive(신정보)	_____	___X___	X!
ㄴ. Replacing(대치)	___X___	___Y___	NotX, but Y!
ㄷ. Expanding(확장)	___X___	___X and Y_	Also Y!
ㄹ. Restricting(제한)	___X and Y_	___X___	Only X!
ㅁ. Selecting(선택)	___X or Y_	___X___	X!

3.2.2.장에서 살펴볼 ‘-지’가 나타나는 종속문의 경우 바로 대치형(37 ㄴ)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Dik은 이와 관련하여 (38)과 같은 예시를 제시했다.⁶⁸⁾ 여기에서 대치형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지하고(rejection) 올바른 정보를 제시하는(correction) 단계를 거친다.

68) Dik (1997), p. 283.

- (38) ㄱ. No, he didn't buy COFFEE, he bought RICE.
 [No, Rejection, Correction]
- ㄴ. No, he he bought RICE, not COFFEE.
 [No, Correction, Rejection]
- ㄷ. No, he didn't buy COFFEE.
 [No, Rejection]
- ㄹ. No, he bought RICE.
 [No, Correction]

Dik은 이러한 ‘강조와 대조’의 결합에서 (38)ㄱ, ㄴ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강조 표시(대문자)를 하여 강조가 모든 절에 주어지는 것으로 제시했다.⁶⁹⁾ 반면에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지’가 결합된 절에만 강조가 주어졌다. 그러나 국어 ‘-지’ 결합 문장은 (38) ㄱ, ㄴ 구문 유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강조는 선행절에 주어지기도 하고 후행절에 주어지기도 한다. 곧 (38)ㄱ에 대응되는 (39)ㄱ에서는 후행절인 ‘돈을 쓸어 담다(많이 벌었다)’가 강조되고 (38) ㄴ에 대응되는 (39)ㄴ에서는 선행절인 ‘소녀시대를 사랑하다’가 강조되고 있다.

- (39) ㄱ. 김사장이 돈을 번 게 아니지, **돈을 쓸어 담았다.**
 [No, Rejection, Correction]
- ㄴ. 영수가 **소녀시대를 사랑하지**, 좋아하는 게 아니다.
 [No, Correction, Rejection]

이러한 ‘강조와 대조’의 결합에 대해 기능 담화 문법(Functional Discourse Grammar)을 다룬 Hengeveld는 대조가 흔히 강조의 특별한 한 유형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대조를 독립적인 기능으로 다룬다고 하였

69) Dik (1997), p. 283.

다.⁷⁰⁾ 특히 강조, 화제, 대조가 원래 서로 결합될 수 있는, 언어학적으로 관련된 화용론적 기능(pragmatic function)으로 규정하였다. Hengeveld는 대조를 독립적인 기능으로 보지만 결국 강조 및 화제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강조와 대조의 결합은 흔히 영어의 분열문(cleft sentence)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서 (40)을 제시하였다.⁷¹⁾

(40) It was the zoo that they went to, not the museum.

3.2.2. 종속문의 ‘강조와 대조’

김건희의 논문에서 다룬 ‘-지’ 결합 문장들을 살펴보자.⁷²⁾

(41) 가. 낙하산 공천은 군사작전이지 **민주정치가 아니다.**

나. 나는 결혼한 여자지 **아줌마가 아니에요.**

다. 철수는 **영이를 사랑하지** 좋아하지 않는다.

르. 토마토는 채소이지 **과일이 아니다.**

김건희 논문에서는⁷³⁾ ‘-지’의 의미기능을 다룬 서정목⁷⁴⁾, 이지영⁷⁵⁾ 등을 토대로 선행 연구의 ‘-지’에 대한 논점은 첫째 접속어미 ‘-지’의 의미 기능이 선행절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둘째 ‘-지’ 결합 문장에서 후행절은 부정문이나 수사 의문문 등의 제한된 유형이 온다는 것이고 셋째 ‘-지’의

70) Hengeveld (2008), p. 96-99.

71) Hengeveld (2008), p. 99.

72) 김건희(2014), 「선행절에 어미 ‘-지’가 결합된 절이 나타나는 문장에 대한 연구」, 『한글』 303, p. 134.

73) 김건희(2014).

74)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75) 이지영(2008), 「절 결속력 변화의 관점에서 본 종결어미 ‘-지’의 형성」, 『어문연구』 3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5-130.

의미기능은 [대조]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 (41)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지’ 결합 문장은 공통적으로 ‘대조’ 양상을 보이지만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강조될 수 있어 ‘-지’의 의미 기능을 선행절, 곧 결합하는 문장을 강조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⁷⁶⁾

그렇다면 이러한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장들의 ‘문법적 의존성’을 범언어적인 대등/종속 기제인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와 같은 형태·통사적 특징으로 살펴보자. (41)의 ‘강조와 대조’ 문장에서 두 가지 형태·통사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선행절에 후행절과 동일한 하나의 주어 ‘낙하산 공천’, ‘나’, ‘철수’, ‘토마토’가 나타나며 후행절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둘째 선행절에는 시제가 표시되지 않은 시제 공유를 모두 보인다. 특히 (42)와 같이 (41)에서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ㄷ)을 제외하고 모두 후행절에 과거 시제를 결합시켜도 선행절에는 시제가 표시되지 않고 후행절의 시제인 ‘과거’로 해석된다.

(42)

(41ㄱ). 낙하산 공천은 군사작전이지 민주정치가 아니었다.

(41ㄴ). 나는 결혼한 여자지 아줌마가 아니었다.

(41ㄷ). 토마토는 채소이지 과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통사적 특징은 바로 2장에서 살펴본 종속화의

76) 이러한 연구 결과 ‘-지’ 결합 종속문에서는 다양한 대조 양상을 기반으로 선택적인 강조가 나타나므로 강조와 대조의 위계 관계에 있어서는 Dik (1997)보다는 Hengeveld(2008)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국내의 기존 논의에서는 ‘-지’의 의미기능을 선행절 강조에 두고 대조와 관련해서는 단지 후행절의 구문 유형으로만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지’ 결합 종속문은 기본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이에 의거하여 강조는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곧 다양한 ‘대조’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선행절과 후행절 중 어느 한 절에 강조(focus)를 두기 위함이다.

기제, 곧 종속문의 특징으로 이러한 ‘강조와 대조’가 나타난 문장도 전형적인 종속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종속 접속어미 ‘-지’가 결합된 종속문은 ‘주어 동일 지시’, ‘시제 공유’라는 종속화 기제에 부합되는 종속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많은 수의 종속 접속어미를⁷⁷⁾ 한정된 지면으로 다 포괄하기는 어려워 김건희 논문에서 다룬,⁷⁸⁾ 대표적인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당연히 추후 다양한 종속 접속어미를 대상으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2.3. 대등문의 ‘강조와 대조’

대등문은 크게 ‘나열(순접 관계)’, ‘선택(선접 관계)’, ‘대조(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문으로 나뉜다.

(43) 나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먼저 (43)과 같은 ‘나열’ 접속문의 ‘대칭성’을 살펴보자. ‘대칭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의 자리를 바꾸어도 원래의 문장과 통사, 의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등한 절들의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어 기존에 대등문과 종속문을 판별하는 대표적인 기제로 사용되었다. 위 문장은 의미적, 통사적 대칭성이 모두 성립하는 ‘-고’

77)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기준으로 종속 접속어미는 208개이다. 다만 대등 접속어미는 일반적으로 ‘나열, 선택, 대조’의 세 의미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대표적인 어미들을 포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3.2.3.에서는 이러한 대등 종속접속어미가 결합된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문의 대등성과 종속성을 살펴보겠다.

78) 김건희(2014).

대등문이다. 이러한 ‘나열’의 ‘-고’ 대등문은 ‘강조와 대조의 결합’이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장의 논의 대상은 아니므로 더 다루지 않겠다.

다음으로 (44)와 같은 ‘선택’ 접속문의 ‘대칭성’을 살펴보자. 대칭성이 성립하여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라는 명제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강조와 대조’의 전형인 종속 접속어미 ‘-지’뿐만 아니라 ‘선택’을 나타내는 대등 접속어미 ‘-거나, -든지’도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선택

- ㄱ.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냥 죽거나 해라.
(=그냥 죽거나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나** 해라)
- ㄴ. **우리랑 같이 먹으러 가든지** 혼자 굶어 죽든지 맘대로 해.
(=혼자 굶어 죽든지 **우리랑 같이 먹으러 가든지** 맘대로 해)

- (45) ㄱ. 강조: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나 > 그냥 죽거나
대조: 공부를 시작하다 vs. 죽다
- ㄴ. 강조: 우리랑 같이 먹으러 가든지 > 혼자 굶어 죽든지
대조: 우리랑 같이 먹으러 가든지 vs. 혼자 굶어 죽든지

곧 ‘그냥 죽거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나’라는 선행절을 강조하기 위한 극단적인 전제적 역할을 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하거나’와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종속 접속어미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칭성이 성립하여 소위 대등 접속어미로 알려진 ‘선택’의 기능을 가지는 ‘-거나’, ‘-든지’의 경우도 ‘강조와 대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종속문의 경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렇다면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이 나타나는 위 문장의 형태·통사적 특징(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 여부(교체 지시), 대칭성)을 살펴본다면 (44)의 ‘강조

와 대조'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시제 공유⁷⁹⁾, 주어 동일 지시'가 나타나 종속의 특징은 가지지만 의미·통사적 대칭성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종속과 대등의 상반된 특징을 모두 가지는 것이다. 특히 이처럼 통사적으로 대등한 대등문도 명제가 서로 '대조'적인 절들로 연결됨으로써 어느 한 절이 '강조'되고 다른 한 절은 이를 위한 단순한 배경절이 되어 강조되는 절에 종속되기 때문에 '종속'의 특징도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46) 대조

- ㄱ. 돈은 한 푼도 없으나 **마음만은 넉넉하다.**
(#마음만은 넉넉하지만 **돈은 한 푼 없다**)
- ㄴ.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
(#예술은 기나 **인생은 짧다**)
- ㄷ. 길은 겹지만 **속은 하얗다.**
(#속은 하얗지만 **길은 겹다**)
- ㄹ. 형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나 **동생은 합격했다.**
(#동생은 합격했으나 **형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47) ㄱ. 돈은 한 푼도 없으나 **마음만은 넉넉했다.**

- ㄴ.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었다.**
- ㄷ. 길은 겹지만 **속은 하얗다.**
- ㄹ. ?형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나 **동생은 합격했다.**

소위 '대조'의 접속문은 '선택'의 접속문과 같은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34)류와 마찬가지로 후행절에 오는 명제에 초점이 가므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 접속문과의 차이점은

79) 이러한 '선택' 접속은 선행절, 후행절에 시제 어미 결합이 불가한 경우이지만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한 시제를 가지는 '시제 공유'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선택’ 접속문에서는 다른 절을 강조하기 위해 또다른 절은 극단적인 전제적 역할을 하지만 ‘대조’ 접속문은 그야말로 ‘반대’의 상황이 제시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접속문의 경우와 달리 주어 동일 지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47)과 같이 시제 어미가 선행절에 결합되지 않고 후행절에 결합되어 있을 때 시제는 후행절의 시제에 의존하여 해석되는 ‘시제 공유’를 보인다. 따라서 (46) ‘대조’ 접속문에서는 시제는 공유하지만 주어 동일 지시가 나타나지 않는 대등과 종속의 경계에 놓인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강조와 대조’를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소위 대등 접속어미의 대등성과 종속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문의 대등과 종속

대등과 종속의 기제		거나/든지(선택)	으나/지만(대조)
종속	시제 공유	○	○
	주어 동일 지시	○	×
대등	대칭성	○	×

두 부류의 어미가 ‘시제 공유’는 동일하므로 ‘주어 동일 지시(종속성)’과 ‘대칭성(대등성)’으로 판단하면 ‘선택’ 접속문의 경우 대등성과 종속성 모두 뚜렷이 나타나지만 ‘대조’ 접속문의 경우 대등성과 종속성 모두 뚜렷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대등성과 종속성의 정도 차이에 따른 대등성 위계는 설정할 수 없었다. 다만 동일하게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 의미적으로 종속적인 소위 대등 접속어미들도 대등성과 종속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2>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문의 대등과 종속

	대등	종속
거나/든지(선택)	+	+
으나/지만(대조)	-	-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종속문의 경우 전형적인 종속화의 기제에 부합되는 종속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강조와 대조’라는 ‘의존적인 의미적 조건’을 나타내는 대등문(‘선택’과 ‘대조’)의 경우 대등/종속으로 이분화할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곧 ‘대칭성’이라는 전통적인 기제에 의하면 ‘선택’ 접속문이 대등성을 보이는 것이고 ‘주어 동일 지시’ 여부라는 범언어적인 기제에 의하면 ‘선택’ 접속문이 오히려 종속성을 보였다. 이는 앞서 2.2.장에서 종속문에도 종속의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소위 대등문에도 대등/종속이 모두 나타나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대등문의 경우 전형적인 대등문과는 달리 ‘종속성’도 나타나므로 대등에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등과 종속에 관한 구별 기준인 ‘대칭성, 이동현상, 대응화, 주제 보조사 -는’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 기준을 보완하고자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와 같은 범언어적인 대등/종속 기제들을 소개하고 함께 제시하면서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복문에 나타나는 의미적 조건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목도하였고 이에 대한 하나의 시론적 고찰로 ‘강조와 대조’라는 복문에 나타나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따라서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장들의 ‘문법적 의존성’을 범언어적인 대등/종속 기제인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와 같은 형태·통사적 특징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통사적 대등문이 보여주는 예외적인 의미적 종속성을 넘어 화용론적 측면의 위계(hierarchy)에 대해 고찰한다는 의의도 있다.

먼저 범언어적으로 대등성 및 종속성의 판단 기제로 인정되는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 등으로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며 전형적인 종속문의 특징을 보이는 ‘-지’ 결합 문장이 이러한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를 보여 종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반면에 ‘강조와 대조’를 나타내는 소위 대등문의 경우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 등으로 판단한 결과 대등성과 종속성 모두를 나타냈다. 2장에서는 명백한 종속문도 ‘시제 공유’에 의해 ‘이동 현상’ 여부가 결정되는 종속성의 정도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3장 ‘강조와 대조’의 대등문에도 대등성과 종속성이 모두 나타나 소위 대등문의 대등성에도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은경⁸⁰⁾, Sohn⁸¹⁾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대등과 종속이 ‘정도 차이’임을 주장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등문, 종속문 각각에 대등성과 종속성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보이며 이러한 ‘정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어미 연구가 형태·통사적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어미 연구에 대한 의미·화용론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곧 2장에서 형태·통사적 특징에 기반하여 복문을 살펴본 결과 의미·화용론적 측면을 고찰할 필요성을 목도하고 관점을 전환하여 3장에서는 ‘강조와 대조’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징이 나타나는 복문의 형태·통사적 특징(‘주어 동일 지시 여부, 시제 공유, 대칭성 등)

80) 이은경(1995).

81) Sohn (1999).

을 살펴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통사적 특징은 대등성/종속성 판단 여부와 관련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강조와 대조’를 대등과 종속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정립한다기보다는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기존 논의에서 제안한 ‘의미적 의존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국어 어미 및 복문 논의에서 다루지 않은 ‘강조와 대조’의 결합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시론적 고찰이 좀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접속어미를 대상으로 한 후속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 저】

- 고광주(1999), 「대등 접속문에 대한 재검토」,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_____(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건희(2014), 「선행절에 어미 ‘-지’가 결합된 절이 나타나는 문장에 대한 연구」, 『한글』 303.
- _____(2012ㄱ), 「부사절의 수식과 접속-종속 접속절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글』 297, 한글학회.
- _____(2012ㄴ), 「부사절과 관형사절의 수식」,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 김선혜(2014), 「한국어 내포문 체계에 대한 재고-부사절과 인용절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 한글학회.
-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말 10, 연세대 한국어학당.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엄정호(1991), 「‘-고’ 등위 접속문의 구조」, 『언어와 언어교육』 6, 동아대학교 어학연구소.
- 유현경(2011), 「접속과 내포」, 『국어학』 60, 국어학회.
- _____(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 어미」,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 _____(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 이관규(1999ㄱ), 「대등문 종속문 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칭어문』 27-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_____(1999ㄴ), 『학교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이은경(2000), 『국어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 _____(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1995), 「접속문의 대등성과 종속성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3, 텍스트언어학회.
-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지영(2008), 『절 결속력 변화의 관점에서 본 종결어미 ‘-지’의 형성』, 『어문연구』 3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 임홍빈 · 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1』,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장요한(2007), 『‘문장의 확장’에 대한 소고』, 『시학과 언어학』 14, 시학과 언어학회.
- 최재희(1997), 『국어 종속 접속의 통사적 지위』, 『한글』 238, 한글학회.
- _____(1991), 『국어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 Dik, Simon C. (1997),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 I: The Structure of the Clause, Berlin and New York, NY: Mouton de Gruyter.
- Gerd Jendraschek & Yongmin Shin (2012), Korean converbs between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The proceedings of 2012' Language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rdarik Blühndorn (2008), Subordination and coordination in syntax, semantics and discourse: Evidence from the study of connectives, in Fabricius-Hansen & Ramm (eds.), *Subordination' versus 'Coordination' in sentence and Text*, Amsterdam, Benjamins.
- Hengeveld, K. & Mackenzie, J. L. (2008), *Functional Discourse Grammar: A typologically-based theory of language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Kwon, Nayoung & Polinsky, Maria (2008), What does coordination look like in a head-final language?, in Lewandowsky-T., Barbara (eds.), *Asymmetric Events*, Amsterdam: Benjamins.
- Noonan, M. (1985), Complementation, in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omplex constructions*, Volume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hn, Homin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eon, Jaehoon & Brown, Lucie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Whaley, L. J. (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김기혁 옮김(2008), 『언어 유형론』, 소통).
- Wilkins, David P. (1988), Switch-Reference in Mparntwe Arrente (Aranda): Form, Function, and Problems of Identity, in P. Austin (ed.) *Complex Sentence*

Constructions in Australian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원고 접수일: 2014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4년 7월 24일

계재 확정일: 2014년 7월 31일

ABSTRACT

The Re-examination of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Kim, Keon-he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re-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by studying the previous criteria (comprising ‘symmetry’, ‘movement’, ‘anaphora’, and ‘the topic particle *-nun*’) and to propose a new perspective on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based on complex sentences which illustrate the focus and contrast of semantic pragmatics. In this study, the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of the complex sentences are examined in particular by the universal coordinative/subordinative standard, ‘shared tense’ and ‘(non-)switch reference’. As ‘*-ci*’ subordinative sentences show subordination according to the language typological coordinative/subordinative standard of shared tense and (non-)switch reference, the ‘*-ci*’ sentence, which is a traditional ‘focus and contrast’ sentence, can be seen to show subordination. The ‘or’ coordinative sentences (focus and contrast) show coordination from the view of symmetry, and subordination from the view of (non-)switch reference. In previous studies, such as Lee (1995), Sohn (1999), it has been assert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is the matter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won University

of degree. This position is further developed in this study by concretely explaining, according to a new distinction criteria, the degrees required for subordination *vis-à-vis* coordination. Consequently there exists flexibility, not dichotom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